

# “뱀장어에 물리고 장염 걸리고... 정말 고생”

# “기존 가수·연습생도 참가 OK”

11월 방영 'K팝스타 6' 올해 마지막 시즌

## 영화 '계춘할망' 해녀 역 윤여정

### 이번 영화 증조할머니께 바치고 싶어

### 촬영 현장에선 무서운 할머니로 통해

“제주도 촬영 현장은 고통과 투쟁의 연속이었어요. 뱀장어에 허벅지를 물리고, 해녀복을 입다 킷바퀴가 찢어지기도 했죠. 장염에 걸려서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실려 갔고요.”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들의 한 카페에서 만난 여배우 윤여정(69)은 베데랑 해녀로 분한 영화 '계춘할망'의 촬영 배경이었던 관광지 제주도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는지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의 화법은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거침이 없다. '계춘할망'의 연출부와 제작진이 아마추어 같아 고생했다는 불평과 함께 자신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다는 이야기를 특유의 맛깔스러운 어투로 이어나갔다. “애들(스태프들) 때문에 속이 썩었죠. 아마추어 같은 연출부와 제작진을 아역배우 가르치듯이 지도했어요. 저는 지도고, 그들은 아담맞는 거죠. 제가 맡은 배역은 따듯하고 인자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완전 무서운 할머니였어요. 감독에게 영화 끝나고 스크롤 올라갈 때 ‘캐스팅’이 아닌 ‘고마운 사람들’에 제일 먼저 제 이름을 넣으라고 했어요.”

윤여정은 “영화는 종합예술이라는 말을 요새 절감한다”면서 “성격과 배경이 다른 수십 명이 모여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 현장은 드라마보다 훨씬 예술적이고 여유롭다”면서 “영화는 꿈을 가지고 모인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자신은 여배우라는 칭호보다 '노배우'가 더 어울린다고 밝힌 그의 직업관도 솔직담백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일해요. 연기할 때 예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제게는 연기가 일이니까요. (중략) 나이 70이던 노배우죠. 여배우면 안경도 벗고, 속눈썹 붙이고 예뻐야 할 것 같았어요. 이 나이 되면 고정관념도 강해져요. (웃음)”

‘꽃보다 누나’에 출연해 새로운 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능숙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윤여정은 예능 출연에 대한 소신도 확실히 밝혔다.

“저를 배우로서 평가하는 것은 달게 받겠어요. 제일이나니까요. 그러나 예능으로 평가받는 것은 싫어요. 제가 정치인처럼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는 감각도 갖지 못했었고요. 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잘

말 싫어해요. 사실 이 인터뷰도 내키지 않습니다. (웃음)”

앞으로 예능에 출연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는 질문에 “세상일은 어떻게 될지 흘러가는 대로 가봐야 안다”면서 “성경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고 재치있게 반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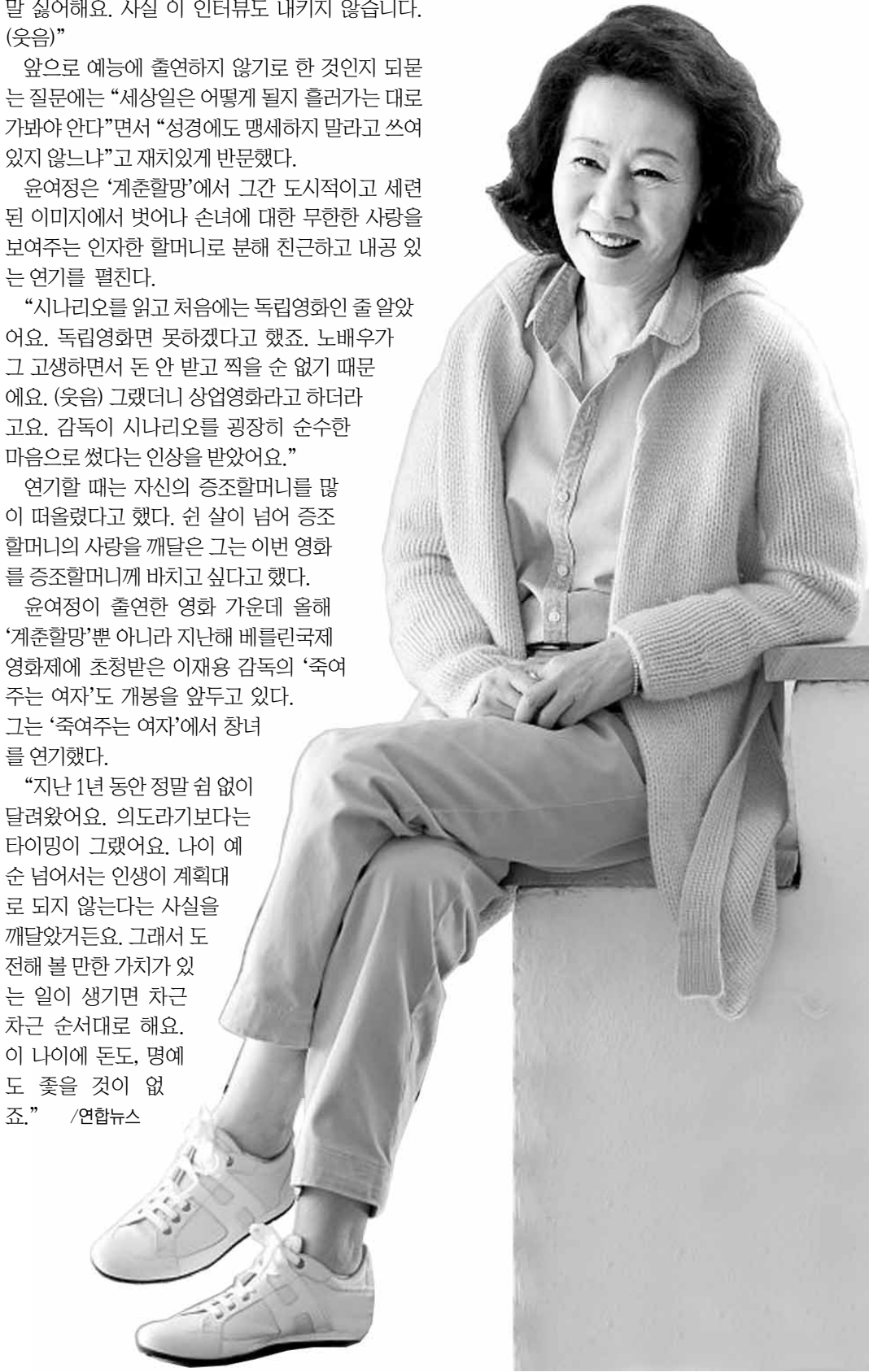
윤여정은 '계춘할망'에서 그간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인자한 할머니로 분해 친근하고 내공 있는 연기를 펼친다.

“시나리오를 읽고 처음에는 독립영화인 줄 알았어요. 독립영화면 못하겠다고 했죠. 노배우가 그 고생하면서 돈 안 받고 찍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웃음) 그랬더니 상업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썼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연기할 때는 자신의 증조할머니를 많이 떠올렸다고 했다. 쉰 살이 넘어 증조할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그는 이번 영화를 증조할머니께 바치고 싶다고 했다.

윤여정이 출연한 영화 가운데 올해 '계춘할망'뿐 아니라 지난해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받은 이재우 감독의 '죽여주는 여자'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그는 '죽여주는 여자'에서 장녀를 연기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심 없이 달려왔어요. 의도적이거나 타이밍이 그랬어요. 나이 예순 넘어서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생기면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요. 이 나이에 돈도, 명예도 좇을 것이 없죠.” /연합뉴스



SBS TV 'K팝스타'가 여섯번째 시즌으로 막을 내린다.

시즌 1부터 이 방송을 연출해온 박성훈 SBS PD와 양현석·박진영·유희열 심사위원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오는 11월 방송되는 'K팝스타6'가 'K팝스타'의 마지막 시즌이라고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라스트 찬스”라는 부제가 붙은 'K팝스타6'는 앞선 시즌과 달리 심사위원들이 수장으로 있는 기획사와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기존 가수나 이미 소속사가 있는 연습생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박진영은 “참가자도 그렇고 저희 심사위원도 그렇고 점점 소모적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희도 어느 순간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더라”며 “심사위원과 참가자를 위해 이쯤에서 마지막 시즌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YG엔터테인먼트, JYP, 안테나뮤직은 'K팝스타6' 우승자의 프로듀싱은 물론이고 곡도 추가로 했다. 데뷔 이후 기획사가 있다면 원 기획사로 돌아가고, 소속사가 없다면 개인 자격으로 기획사와 계약 여부를 논의하면 된다.

“‘서태지와 아이들’을 4년 했는데 'K팝스타'는 6년까지 왔다”고 농담을 던진 양현석은 “우리가 너무 깊은 산 속에 묻혀있는 보석을 찾았다고 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재능에도 기획 때문에 잘 안 된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며 “굳이 땅을 파서 보석을 찾기보다 이미 나와 있는 친구들이 더 빛나도록 잘 도와주는 게 이번 시즌의 목표”라고 새로운 포맷을 설명했다.

박진영은 “이미 계약이 된 친구들이 참가하지 못하다 보니 주류 음악이 아닌 음악을 하는 참가자들이 몰렸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음악이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자기 음악을 하면서 주류 음악과 대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K팝스타'는 2011년 12월 첫 방송해 지금까지 다섯 시즌 동안 박진민, 이하이, 악동뮤지션, 샘 김 등 다수의 가수를 배출했다. /연합뉴스

## 곽진언, '슈스케' 상금 2억 기부 뒤늦게 확인

어머니 권유로 기부 결심...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가수 곽진언(24)이 지난 2014년 앨범 '슈퍼스타K 6' 우승 상금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곽진언은 지난해 10월 중순에 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제94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곽진언이 지난해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원을 전달했다”면서 “기부금은 강원도 지역의 취약 계층을 위해 고루 배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강원도 양양에서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 하는 어머니의 권유로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곽진언의 소속사 뮤직팜은 이에 대해 “본인이 기부한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아 우리도 몰랐던 일”이라고 했다.

'슈퍼스타K 6' 이후 뮤직팜 행을 결정한 곽진언은 3억 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2억 원을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열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부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수상한 휴가(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옥중화)(재)	00 닥터 365 05 정은효의 세계문화유산순례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재)	00 MBC 정오뉴스 20 good-bye, 미스터블랙(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라스페셜 55 TV 블로그 품지락
1	00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킹트렌스 (아름다운 종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별가족			
2	00 2016 리우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노스터리(재) 25 드림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노스터리(재)	00 열린 TV 시청자 세상
3	55 토티생활체조	00 자동분류상위 위기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이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예술론 토론 30 SBS 뉴스메이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 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며느리의 성)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 24 55 동대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정의 달 특집 5월, 아이들 (내가 곁에 있을게)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	00 수목미시니스트 (good-bye, 미스터블랙)	00 드라마 스페셜 (딴따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보컬전쟁 신의 목소리
12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에 아침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세계의 포도 양할포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채소 조리와 유부 초밥)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사 (문화융성이 강국을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철학자 후고 15:35 홍기신나라 오기토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출동! 슈퍼워즈(재) 16:30 방귀대장 풍뎉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보물보물 보로로(재) 18:00 생방송 특토!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수소의 대지, 베트남 3부 풍요의 신이 내린 선물> 21:30 한국기행 <명당보고서, 심수지> 21:50 EBS 다크 프라임 <한반도 대서사시 나무> 22:45 극한직업 <이동식 한옥 제작> 23:35 장수의 비밀 24:05 지식채널 e 24:10 한국영화특선 <엄마 없는 하루 아래>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1일(음 4월 5일 癸巳)

<b>子</b>	48년생 당연시 해왔던 것 속에 문제점이 만연해 있다. 60년생의 견을 개진하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72년생 도와주는 이가 있어서 겨우 체면을 유지하라. 84년생 단일한 형태가 효율성을 제고하라. 행운의 숫자 : 15, 25	<b>午</b>	42년생 원점에서 재검토해 봐야겠다. 54년생 승평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할 처지에 놓인다. 66년생 불리한 사람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78년생 비교되면서 진가가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92, 34
<b>丑</b>	49년생 승인이 있는 게임이니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61년생 범심한다던 순식간에 당할 수도 있다. 73년생 작악으로 판단한다면 큰 일 나겠다. 85년생 예견된다던 확실회 회피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4, 45	<b>未</b>	43년생 다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55년생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에 신경을 써야겠다. 67년생 부진함을 면회할 수 있는 상상의 운세가 다가오고 있으니, 79년생 실효적 관점에서 기존 살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1, 44
<b>寅</b>	50년생 관련된다면 점점 부담스러운 일들이 속출할 것이니 즉시 철회하는 것이 낫다. 62년생 바라던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 기대해도 된다. 74년생 다중적인 구조이다. 86년생 생각만으로는 무 의미하니 직접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52, 91	<b>申</b>	44년생 유명무실한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56년생 함께할 자리에 빠져서는 아니 되겠다. 68년생 의심스럽다면 차치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80년생 무의식중에 넘어지거나 빛나갈 수도 있으니. 행운의 숫자 : 45, 46
<b>卯</b>	51년생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되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63년생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75년생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실행해야 한다. 87년생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69, 30	<b>酉</b>	45년생 시기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가 될 것이다. 57년생 불면함이 겹치는 이중고의 상태이다. 69년생 숙단은 글꼴이니 차분하게 생각할 일이다. 81년생 사소한 것이 큰 결림들로 작용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7, 07
<b>辰</b>	40년생 예상이 빛나기 바릴 수도 있다. 52년생 강한 확신으로 과단성 있게 추진하라. 64년생 임추의 여지가 없었다. 76년생 언급의 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88년생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니 확실해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 40, 65	<b>戌</b>	46년생 강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58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좋다. 70년생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82년생 녹슬지 않도록 잘 갈고 닦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46, 39
<b>巳</b>	41년생 내면의 실속은 없다. 53년생 깊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65년생 시행착오에 따른 손실이 지대할 것이다. 77년생 비바람이 치고 있으니 활동을 자제해야 할 때다. 89년생 대동소이하니 일괄 처리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80, 53	<b>亥</b>	47년생 가까이에 노출되어 있으니 금방 눈에 띈다. 59년생 신용을 잃은 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법이다. 71년생 일곱 색깔의 무지개가 걸려 있다. 83년생 생산적인 국면으로의 전환과 운운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2, 9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